

제주문학의 활성화 방안*

김 동 윤**

차 례

1. 왜 지금 지역문학인가
- 2-1. 제주의 정체성을 견지한 창작
- 2-2. 젊은 작가에 대한 지원 강화
- 2-3. 제주문학 교육 프로그램 마련
- 2-4. 제주문학 연구의 활성화
- 2-5. 제주문학관 건립
- 2-6. 지역 출판업과 언론의 문제
3. 마무리

1. 왜 지금 지역문학인가

‘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다른 분야도 아닌 ‘지역문학’을 붙들고 말한다는 데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있는 줄 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문학이나, 게다가 그 변두리인 지역문학이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하는 뜨악한 눈길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학은, 그리고 지역문학은 이 시대에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필수적인 양식이다. 왜 지금 여기서 문학을 붙들어야 하고 지역문학을 운위해야 하는가.

* 이 글은 필자가 『제주시』 제46호(제주시, 2004)에 발표했던 「제주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깊고 보태어 작성한 것입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예술과 과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창조적 행위의 두 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이 양자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인간과 세계의 여러 현상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인간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체들간의 이해가 불충분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 지배와 효용성에 치우친 과학의 논리만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 과학은 어떤 대상에 대한 물리적인 탐색은 가능하지만, 질서 체계가 애매하거나 혼란스러운 대상이나 다른 개체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과 과학의 균형성 회복은 인류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문학은 어느 예술 장르보다도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예술 양식이다. 문학이 추구하는 진실은, 그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나 인간이 추구하는 일상적 가치와는 다르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인간 이해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¹⁾ 따라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문학의 논리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학의 단위는 ①상위단위의 문학(상위문학)인 문명권문학·세계문학, ②중위단위의 문학(중위문학)인 민족국가문학, ③하위단위의 문학(하위문학)인 소수민족문학·지역문학·특수집단문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그 하위의 지역공동체, 그 상위의 국제사회 사이에 있는 중간단계의 조직체임을 인정해야 할 시점인 이상, 문학에서도 민족국가문학만이 다른 둘에 대해서 배타적인 우위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위문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상위문학과 하위문학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위문학으로 관심을 돌리는 작업은 매우 늦은 편이다.²⁾ 우리가 동아시아인·세계인으로 살기 위해 동아시아문학·세계문학을,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한국문학을 각각 접하고 논하는 것처럼, 제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제주문학을 읽고 이야

1) 현길연, 『한국현대소설론』(태학사, 2002), 341~347쪽 참조.

2)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9쪽.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역민으로서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인과 세계인으로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듯 제주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문학의 위기와 지역담론의 방기라는 이중의 악조건 속에서 그 활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제주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는가? 필자는 그것을 여섯 가지로 꼽아 보았다.

2-1. 제주의 정체성을 견지한 창작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의 가치를 전국적인 보편성으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문학의 가치를 전국적인 보편성 인정 여부로 판정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작품에서 형상화한 내용이나 받아들이는 독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뛰어난 문학일 수 있다. 다수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아직 소수만 인정하는 진실성을 치열한 체험을 통해 추구하는 문학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³⁾ 지역문학의 가치와 가능성은 충분하고 무궁무진한 것이다.

예컨대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뛰어난 민족문학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지역문학이기도 하다. 조정래가 나고 자란 전라남도 동부지역 사람들의 삶과 언어와 역사가 진득하게 배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삶·언어·역사 등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해당 지역 사람들만이 아닌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의 자장(磁場)이 미친다. 이렇듯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한국과 세계의 보편적 문제에 접근하는

3) 위의 책, 52쪽.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창작 방식이 되는 셈이다. “지역공동체는 관념이 아닌 생활의 영역”이기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인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⁴⁾을 지역문학은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지역문학 작가들은 한국문학의 보편적 규범이나 수준을 향하면서 지역의 생활세계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⁵⁾ 마땅한 것이다.

제주문학은 “제주지역의 문화와 풍토가 작품 속에 배어 있고,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정서가 반영된 문학”⁶⁾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정서는 제주도의 정체성·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물론 제주의 모든 작가들이 모든 작품에서 제주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데 진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제주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올 때 제주문학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지 않는, 심지어 지역의 정체성·특수성과 무관한 작품만을 발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지역문학이 침체상태에 빠지게”⁷⁾ 될 것이 분명하다.

제주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단순히 제주적인 것을 소재로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주를 소재로만 삼은 문학의 경우, 적어도 제주문학으로서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주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려면 무엇보다도 작가가 ‘지역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제주섬의 운명을 고스란히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한 문학이어야 한다. 확실한 천착 없이 지역적인 것을 대상화하는 작품은 관광객·여행객의 입장에서 쓴 작품과 다를 바 없다. 관광객·여행객의 입장에서 쓴 작품에서는, 설사 작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역

4) 위의 책, 5쪽.

5) 박태일, 「지역문학의 현실과 과제」, 『제주작가』 제10호(실천문학사, 2003), 26쪽.

6) 김영화, 「책머리에」,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4~5쪽.

7) 김병택, 「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 『한국문학과 풍토』(새미, 2002), 99쪽.

민의 삶을 왜곡하고 감상적으로 대상을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법이다. 따라서 제주의 작가들은 '제주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보편적인 공감도 얻어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기영의 장편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1999)가 제주인의 의식과 정서를 반영한 작품이면서도 전국의 독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치밀한 탐구를 저변에 깔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문학으로서 성공한 작품은 나아가 민족국가문학으로서도 그 성공이 이어지게 마련임을 현기영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2-2. 젊은 작가에 대한 지원 강화

여기서 젊은 작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원로작가들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젊은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그 지역의 문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다. 젊은 작가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위촉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 문학판의 미래는 뻔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1990년대 이후 문인들이 급증하여 문단 규모가 꽤 커졌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문인협회에 128명, 제주작가회의에 70명이 각각 등록되어 있어서 모두 198명이 양대 문학단체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⁸⁾ 지난 2000년부터 두 단체에 중복 등록된 경우가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실제 문인 수가 198명보다 줄어들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두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문인들도 있거니와 새로 등단한 문인들도 2003년에만 30명이 넘으므로⁹⁾ 제주문단의 문인들은 200명이 훨씬 넘어 300명에 육박

8) 제주도 양대 문인단체 회원 현황(2003년 말 기준)

단위: 명(%)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 중의 하나는 제주에서 새로이 등단하는 작가의 대다수가 장년·노년층이라는 점이다. 물론 장년·노년층 작가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문학인들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신진 작가들 중에 젊은 작가들을 거의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후배 젊은 작가를 갖지 못한 문단에서 원로와 중견의 의미는 아무래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돌이켜 볼 때, 현기영이 『순이 삼촌』(1978)을 들고 나와 전국의 독자들을 충격에 빠트린 시점은 그의 나이가 서른여덟 살이던 때였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 지금 제주에, 혹은 제주 출신으로서 제대로 활동하는 30대 소설가가 있거나 한가. 4·3은 그 진실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의 작가들이 영원히 보듬고 형상화해 나가야 할 숙명적인 주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목할 만한 4·3소설이 나오지 않고 있어 문제다. 4·3시의 경우엔 일부 젊은 시인들에 의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4·3소설은 꽤 오랫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것이 제주 출신 젊은 소설가의 부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젊은 작가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제주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신진 예술가 지원’ 항목을 최근해야 마련한 정도다. 그리 많지 않은 각종 문학상이나 지원금 같은 것들도 중견이나 원로작가에게 편중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예전에도 다 그렇게 했다,

| 구분 | 시 | 시조 | 소설 | 희곡 | 수필 | 아동문학 | 평론 | 번역 | 계 |
|--------|----------|---------|----------|--------|----------|----------|---------|--------|----------|
| 제주문인협회 | 49(38.3) | 11(8.6) | 7(5.5) | 2(1.6) | 34(26.6) | 18(14.1) | 3(2.3) | 4(3.1) | 128(100) |
| 제주작가회의 | 31(42.9) | 6(8.6) | 13(18.6) | 2(2.9) | 4(5.7) | 2(2.9) | 8(11.4) | 4(5.7) | 70(100) |
| 계 | 80(40.4) | 17(8.6) | 20(10.1) | 4(2.0) | 38(19.2) | 20(10.1) | 11(5.6) | 8(4.0) | 198(100) |

9) 2003년에 등단한 제주 출신 문인 현황

| 구분 | 시 | 시조 | 소설 | 희곡 | 수필 | 아동문학 | 평론 | 계 |
|--------|------|------|-----|-----|------|------|-----|-----|
| 인원(명) | 5 | 4 | 3 | 0 | 15 | 3 | 1 | 31 |
| 백분율(%) | 16.1 | 12.9 | 9.7 | 0.0 | 48.4 | 9.7 | 3.2 | 100 |

오히려 그때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문학에만 파고들었다며 편잔을 주고 싶은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웬만한 이들이 다 문학소녀요 문학청년이던 시절과 지금이 어디 같은가 말이다.

영상물과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문학을 붙들고 씨름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격려받을 일이라고 본다. 젊은 작가들의 역동적 활동은 제주문학의 밝은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자(因子)다. 따라서 제도적·재정적 차원에서 젊은 작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제주문학계에서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 없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운위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2-3. 제주문학 교육 프로그램 마련

문학이 살기 위해서는 독자가 있어야 한다. 작품은 독자의 의식에 기록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수용미학자들의 견해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독자가 없는 문학은 그 존재의 의미를 이미 잃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문학 환경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문학의 독자들이 영상물과 대중문화 쪽으로 상당부분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지역문학의 독자층은 더욱 더 얇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작가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한다. 지역작가의 작품 읽기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학향유층의 확산과 연관되는 문제다. 따라서 문학 교육과 문학 대중화 사업에서 제주문학적인 측면을 대폭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동일은, 문학 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각 단계에 적절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학을 지역민의 생활사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작업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지역문화라는 종합적 교과목이 초등학교부터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중·고등학교 과정에도 심화되어 이어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¹⁰⁾ 국어과 재량활동을 활용한 지역문학 현장 교육도 다방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¹¹⁾ 현재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는 지역문학이 다소나마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향토문학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고, 경남대학교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과정에 ‘지역문학연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에서도 곧 국어국문학과 전공과목으로 ‘지역문학론’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학의 지역문학 강의는 “지방사 또는 지방민의 생활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서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방의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며 “문화나 사회 현상에 대한 직접 체험한 바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연구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도 좋은 훈련”¹²⁾이 된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는 다행히 지역문학론 강의를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그것이 심화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교양과정에도 전북

10) 조동일, 앞의 책, 210쪽.

11) 강영기는 「국어과 재량활동을 활용한 제주문학 현장 교육」(『제주어문·문학과 국어교육(자료집)』, 제주대 교육대학원, 2003)에서 그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작가가 지닌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②문학작품을 둘러싼 생산과 수용의 주체 및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심미안과 비평 의식을 지닐 수 있다. ③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재발견을 유도할 수 있다. ④제주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제주도민으로서 지닌 공동체 의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⑤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자료집 99쪽)

12) 조동일, 앞의 책, 210쪽. 조동일은 이 책에서 줄곧 ‘지역’보다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가 아닌가 한다.

대학교와 같은 ‘향토문학의 이해’ 혹은 ‘제주문학의 이해’라는 이름의 강좌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내의 다른 대학에도 제주문학 관련 강좌 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스위스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들라면 고향 작가를 우선적으로 꼽는다고 한다. 그만큼 작가들이 지역사회 학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¹³⁾ 이는 지역의 문학단체들이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의 밤, 시낭송 행사, 문학교실 등이 자주 열려야 한다. 특히 지역문학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은 지역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역 사랑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¹⁴⁾ 제주작가회의에서 2003년과 2004년 4월에 시도한 ‘작가와 함께 떠나는 4·3문학기행’은 의미 있는 기획으로 평가할 만하다. 4·3문학의 현장을 답사하며 문학강좌, 시낭송, 이야기마당 등을 가짐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던 행사였다. 이밖에도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 읍·면이나 마을 등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 등 다양한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주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제주문학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아니라, 그 문학에는 내 모습과 혼과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자라나는 사람들의 심성에 아름다운 꽃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들이 문학인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쓴 책을 즐겨 읽게 된다면 제주의 문학은 국제자유도시인이 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¹⁵⁾라는 말

13) 현길연, 「제주문화예술의 전통성과 세계성」, 『삶과 문화』창간호(제주문화예술재단, 2001), 21쪽. 이 글에서 현길연은 ‘작가’로 한정하지 않고 ‘예술인’ 전체로 범위를 넓혀 언급했다.

14) 이순욱, 「지역문학과 문학현장」, 『국어교과교육연구3』(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172쪽.

15) 현길연, 「국제자유도시의 문학」, 『제주작가』 제8호(실천문학사, 2002), 295쪽.

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언은 비단 어린이·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제주인 전체에 해당되는 말일 터다.

2-4. 제주문학 연구의 활성화

지역문학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학 연구는, 첫째, 원래 인간의 삶 자체가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은 당연히 지역문학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문학 연구를 통해 민족문학(한국문학) 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 문학사도 재정립할 수 있다, 셋째, 지역민들의 정체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한국문학을 더욱 다양화하고 그 범주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¹⁶⁾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박태일은 “지역문학 연구는 중앙문학 연구의 식민지도 아니고, 자격의 의심스러운 비전문가가 학문하는 체 행세하는 저자거리도 아니”라고 전제한 후 “그 연구 대상인 기초 자료를 찾아 간추리고 갈무리하는 일에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지역대학의 국어국문학과가 앞서고, 관련 기관과 지역 동호인 모임, 그리고 문화활동 단체들이 서로 밀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¹⁷⁾ 조동일이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마다 지방문학을 전공 분야로 삼는 교수가 있어 지방문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현지조사를 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¹⁸⁾이라고

16) 김동윤,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담라문화』 제20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48쪽.

17)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제2호(경남지역문학회, 1998), 130~131쪽.

18) 조동일, 앞의 책, 210쪽. 그러나 조동일이 ‘이상적’이라고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엄격한 의미의 지역문학 전공 교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지역문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성과물을 내는 경우는 있어

밝힌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남·부산 지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1997년 봄 결성된 ‘경남·부산지역문학회’¹⁹⁾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 문학 관련자료의 발굴, 정리와 연구, 비평뿐 아니라 지역 문학창작과 교육 활동을 홍보, 지원하기 위한 뜻으로”²⁰⁾ 결성된 경남·부산지역문학회에서는 1997년 8월 이후 『지역문학연구』를 9호까지 펴냈다. 『지역문학연구』는 창간호 이후 지역문학 발굴자료, 지역문인들의 삶과 문학에 관한 논문, 문학유적 탐방기, 지역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서평 등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문학회에서는 지역문학총서²¹⁾도 간행하기 시작했다. 박태일 엮음 『김상훈 시 전집』(2003), 한정호 엮음 『김상훈 시 연구』(2003), 박태일 지음 『한국지역문학의 논리』(2004)·『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2004) 등 네 권을 이미 내었고, 이장렬 엮음 『권환 문학 전집』과 한정호 엮음 『김대봉 문학 전집』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제주에서도 점차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 들어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1998), 김병택의 『한국문학과 풍토』(2002), 김동윤의 『4·3의 진실과 문학』(2003) 등 제주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만을 담은 저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꽤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손대지 못한 부분들이 매우 많다. 앞으로 제주문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영인하고 해제하고 분석해내야 하며, 『제주문학사』가 씌어져야 하고, 『제주문학사전』 등도 편찬할 필요가

도, 지역문학 연구자로 대학에 임용되어 지역문학 전공자임을 자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우리나라에서 지역문학 전공 교수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리라 본다. 하지만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19) 처음에는 ‘경남지역문학회’였다가 최근에 ‘경남·부산지역문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20) 「머리글」, 『지역문학연구』창간호(경남지역문학회, 1997), 2쪽.

21) 정확히 말해 이 지역문학총서는 ‘경남·부산지역문학회’ 명의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간행 주체들은 경남·부산지역문학회의 핵심 연구자들이다.

있다. 작고한 제주의 작가를 중심으로 전집도 간행하고 작가별로 연구는 문과 평론을 엮은 단행본도 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여러 학자들이 역량을 모으고 상시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예컨대 '제주문학연구소' 같은 연구조직체가 설립된다면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구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5. 제주문학관 건립2)

전국적으로 수십 개소의 문학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제주작가회의에서는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제주문학관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문인협회와의 간담회도 거쳤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동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용역을 거쳐 확정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제주문학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머지않아 그 건립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특정 작가 중심의 문학관이 많이 들어섰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정 작가나 주제 중심보다는 우선 제주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제주문학관'부터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제주문학관은 지역 문인들이 추진 주체로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국고의 지원 등으로 건립하되 지역문학 중심의 문학관이라는 성격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문학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22) 이 부분은 필자가 「제주문학관 건립의 필요성과 그 방향」(『제주문화예술』 2003년 여름호, 제주민예총)과 「제주문학관,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삶과 문화』 2003년 가을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생각한다.

첫째, 제주문학관은 제주문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하고 기획 전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제주와 연고가 있는 작가들의 육필원고와 서적·사진·유품·취재노트 등 각종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제주문학사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문학박물관(전시관·기념관)으로서의 기능은 문학관을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게 할 것이다. 작고 문인들은 물론 현역작가들의 작품과 각종 자료들을 갈무리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제주에서 발간된 동인지, 잡지, 기관지, 신문 등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가 어렵다. 유실된 자료를 찾아내는 한편, 현재 보관 중인 자료들도 한 군데로 모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대로 확보하여 정리하고 있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 제주문학관은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제주문학박물관만이 아닌, 반듯한 제주문학전문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문학연구센터로서의 공간이어야 한다. 한국 현대문학의 경우, 우리가 익히 접해온 문학은 중앙문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문인들의 주된 활동무대가 서울이나 아니냐에 따라 그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문학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유별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문학 관련 학회가 결성되는 가 하면 대학 교과과정에 지역문학 강좌가 개설되는 등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제주문학관은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지역문학을 연구하는 센터로서의 구실을 수행해야 한다. 상근하는 지역문학 전문연구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과 연계하면서 제주문학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문학관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주문학연구소를 제주문학관의 부설 연구소로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셋째, 문학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러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제주도에도 학생과 일반인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창작교실, 문학강연, 문학세미나, 시화

전, 문학의 밤 등 다양한 문학행사들이 자주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행사들은 무대공연장, 음식점, 카페, 찻집,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의 회의실 등을 전전하며 열리고 있다. 제주문학관은 그런 행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학과 문학애호가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불러모아야 한다. 사람들이 음악회를 보러 공연장에 가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듯이, 문학애호가들은 문학관에서 작품 낭독(낭송)회, 문학 관련 전시회 등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화공간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작가회의와 제주문인협회 등 주요 문학단체들의 활동 공간은 물론이요 동인 등 문학 소모임들의 사랑방 구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2-6. 지역의 출판업과 언론의 문제

출판과 언론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건 문학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 출판의 형태로 독자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출판계의 상황에 문학관은 썩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또한 문학작품 발표의 무대가 되기도 하며 문학에 대해 토론하고 그것을 대중화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제주문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출판과 언론의 사정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판산업은 중앙집중화 현상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극심하다. 따라서 지역의 출판산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 서울의 출판산업에 비할 때 지방의 출판은 영세하기 짝이 없다. 제주의 출판산업 상황은 특히 더 그렇다. 제주의 작가들이 제주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도 출판사들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인쇄소에서 출판을 겸하고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출판전문 회사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기획

출판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정·교열이 엉성하고 편집과 디자인도 조악한 경우가 많다. 유통 구조 문제 또한 제주의 문학출판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출판물의 유통구조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에 각 지방의 출판업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학작품이 전국의 서점과 도서관에 골고루 배포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 출판과 유통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조치 등이 매우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업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제주도 당국에서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출판유통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서 줘야 한다. 일례로 지금 제주의 출판사에서 진행되는 문학서적들을 도내의 도서관에서조차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도내 각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도 지역에서 출판되는 문학작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출판업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판이 문화산업의 중요한 인자임을 인식하여 과감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앙행정부서에서 우수문학작품집(한국문예진흥원 주관)과 추천도서(문화관광부 주관) 등을 선정해서 지원하듯이, 제주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된다면 지역의 출판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 작가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지역언론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제주의 언론 사정도 마찬가지다. 신문의 경우 기존의 《제주신문(제주일보)》에 《한라일보》와 《제민일보》가 1990년을 전후하여 가세한 데 이어, 금년에는 주간으로 나오던 《제주타임스》까지 일간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제주의 소리》와 《제주투데이》라는 온라인신문도 창간되었다. 방송의 경우에는 ‘제주방송(JIBS)’과 ‘제주KCTV’가 개국했다. 그 외에도 주간지나 종교 관련 신문·방송사들도 적지 않으니 대단한 양적 성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의 지역문학 관련 지면 편집과 프로그램 편성 사정을 보면 극히 열악하기 짝이 없다. 행사 안내나 출판물 소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문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제주도내에서 간행되는 신문도 문학작품 발표의 요긴한 매체가 되었다. 지역 시인들이 신작시를 수시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면을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 작가들의 소설도 자주 연재하였다. 전문가들의 서평 같은 것도 꾸준히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면은 크게 늘었으며 사정은 되레 악화되었다. 적어도 문학 분야의 지면 편성에서는 이만저만 후퇴한 것이 아니다. 신작시는 창간특집호나 신년특집호의 기념시로나 접할 수 있고 연재소설도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라일보》는 중앙일간지의 컨셉을 빌려 시와 촌평을 그림과 더불어 소개하는 ‘시와 그림이 있는 한라’를 연재하고 있고, 《제주일보》에서는 다른 지방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연재소설을 싣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지역작가의 창작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주문학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제주 시인들의 신작시와 제주 소설가들의 연재소설을 잘 기획해서 지면에 담아내야 한다. 문학칼럼이나 서평 등도 정기적으로 싣는다면 제주문학이 활발한 토론 속에서 역동적인 실체로 독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언론에서 지역문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3. 마무리

위에서 필자는 제주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짚어 보았다. 그것은 작가들이 제주의 정체성·특수성을 견지한 창작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는 것, 젊은 작가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문학 교육과 문학 대중화 사업을 통해 제주문학 향유층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지역문학박물관·연구센터·행사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제주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 제주문학 연구가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의 출판산업이 활성화

되고 지역언론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는 제주문학의 정체성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문학의 활성화는 정체성 확립을 포함한 지역문화의 바람직한 창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문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인들만이 아니라 교육계와 자치단체 등 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방안들은 제주문학이 역동적 실체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심정에서 제기해 본 것이다. 따라서 다소 논의가 거칠거나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필자가 과묵한 탓에 중요한 사항들을 미처 언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문제되는 부분에 조언과 질책을 해 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